전남, 공무원 비리·행정오류 5억 추징 당했다

추징 건수 전국 12% 차지 … 광역단체중 세번째

법인카드 부당 사용 806건 추징액 3777만원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당한 금액이 5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 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8개월 간 전남 공무원들이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4318건, 5억55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추징 건수 3만5971건의 12.00%로, 17개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많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952건), 서울(3624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669건), 금지된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103건), 심야시간 법인카드 사용(34건) 등 부당 적발이 806건에 추징액도 3777만원에 달했다.

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주점이 55건(추징액 3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칵테일바 6건, 노래방 5건, 유흥주점 4건, 주류판매점 4건 등 주류와 관련된 74건으로 전체의 71.8%나 차지했다. 반면 광주시는 추징 734건에 추징액 7909만원을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단란주점 등에서 국민의 혈세로 향락을 일삼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식운영된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준 뒤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동 중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가거도·홍도 등 6곳에 거점 보건지소

전남도 122억 들여 내년 운영

외딴섬에 해당하는 신안 가거도와 홍도, 진도 조도 등의 주민들도 내년부터는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비 81억여원 등 모두 122억원을 들여 가거도·홍도·암태도·하의도 등 신안 4곳, 완도 노화도, 진도 조도 등 모두 6곳에 거점 보건지소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신안 가거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던 해경 헬기가 추락한 뒤 섬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신설되는 가거도 등 신안 4곳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5~7월, 증축대상인 노화도와 조도의 보건지소는 실시설계가 끝나 내년 4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지소들은 입원실 10병상, 초음파·방사선 촬영기·혈액검사 장비를 갖추고 통상 4~6명인 인력도 15명 안팎으로 늘리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거점 보건지소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원격 협진체계를 갖춰 24시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 거점 보건지소 운영상황을 평가해 애초 사업 대상으로 검토됐던 여수 거문도, 영광 낙월도, 완도 금일·청산도 등 4곳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는 애초 100km까지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는 소형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내년부터 중형으로 대체해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목포에서 가거도(145㎞) 등 전남 전 지역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전북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

亞전당 연계 관광벨트 추진

19일 아시아문화전당서

광주시는 오는 19일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2016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호남관광'을 슬로건을 내건 이 컨퍼런스는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며 관광업계와 학계·전문가·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컨퍼러스는 ▲다음 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내 및 광주·전남·북 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박사의 관광시장 환경변화와 호남권 관광발전 방향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단 조덕현 단장의 창조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호남관광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과 3개 자치단체 관광과장,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도 예정돼 있다.

행사 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광주 도심투어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호남권관광활성화 컨퍼런스는 지난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가 호남권 관광진흥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로 창립돼 3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며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열렸다.

/ 최권일기자 cki@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하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소속 어민 등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공유재산 400만㎡ 찾아내

감사위 특감, 행정구역 개편 누락 119만㎡ 포함

광주시가 보통시에서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가 무려 119만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의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7일 최근 6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310필지, 119만6500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30년전인 1986년 11월, 당시 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34필지, 44만8000여㎡를 확인하고 즉시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했다.

2년 뒤인 1988년 1월 당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276필지 74만8488㎡가 관리대장에서 누락됐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각 25억9800만원과 495억2800만원 등 521억2600만원에 달했다.

승계받지 못한 재산에는 농성 2동 주민센터 부지(193㎡), 서구 마륵동 옛 농촌진흥원 시험부지(7만4400㎡),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8만9000㎡)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결과 광주시는 재산 가치가 낮은 도로 등 공공용 재산 일부만 이전받았을 뿐 대부분 행정 및 일반재산을 이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필지 23억2000여만원의 상당의 토지를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전남도로부터 유상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자기 소유의 땅을 돈까지 줘가며 토지보상을 해줬다는 의미다.

특히 전남도는 광주시로 승계되어야 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광주시 재산인 송정롤러스케이트장을 2007년 20억7000여만원을 받고 모 종교단체에 매각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재산의 이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와 자치구 공유재산 중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토지와 건물 등 1474필지(309만㎡, 공시지가 1543억원)를 찾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재산이 승계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감사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일일이 교차 확인해 누락한 공유재산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

쌀 소비 촉진·태풍 피해지역 쌀 보내기

새누리 광주시당·전남도당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7일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 돕기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수해지역 쌀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시당은 이날 광주 남구 대지동에 있는 광주 통합 미곡처리장(RPC)에서 20kg짜리 쌀 50포대를 구입, 태풍 피해 지역인 울주군청에 전달했다. 전남도당도 최근 전남지역 농협 RPC에서 쌀을 구입해 울주군청에 전달했다.

이번 쌀 전달은 광주·전남 시·도당과 각 당협운영위원회에서 성금을 모아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구입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울산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노 광주 동구남구갑 당협위원장은 "울산지역 태풍 수재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지역 쌀 사주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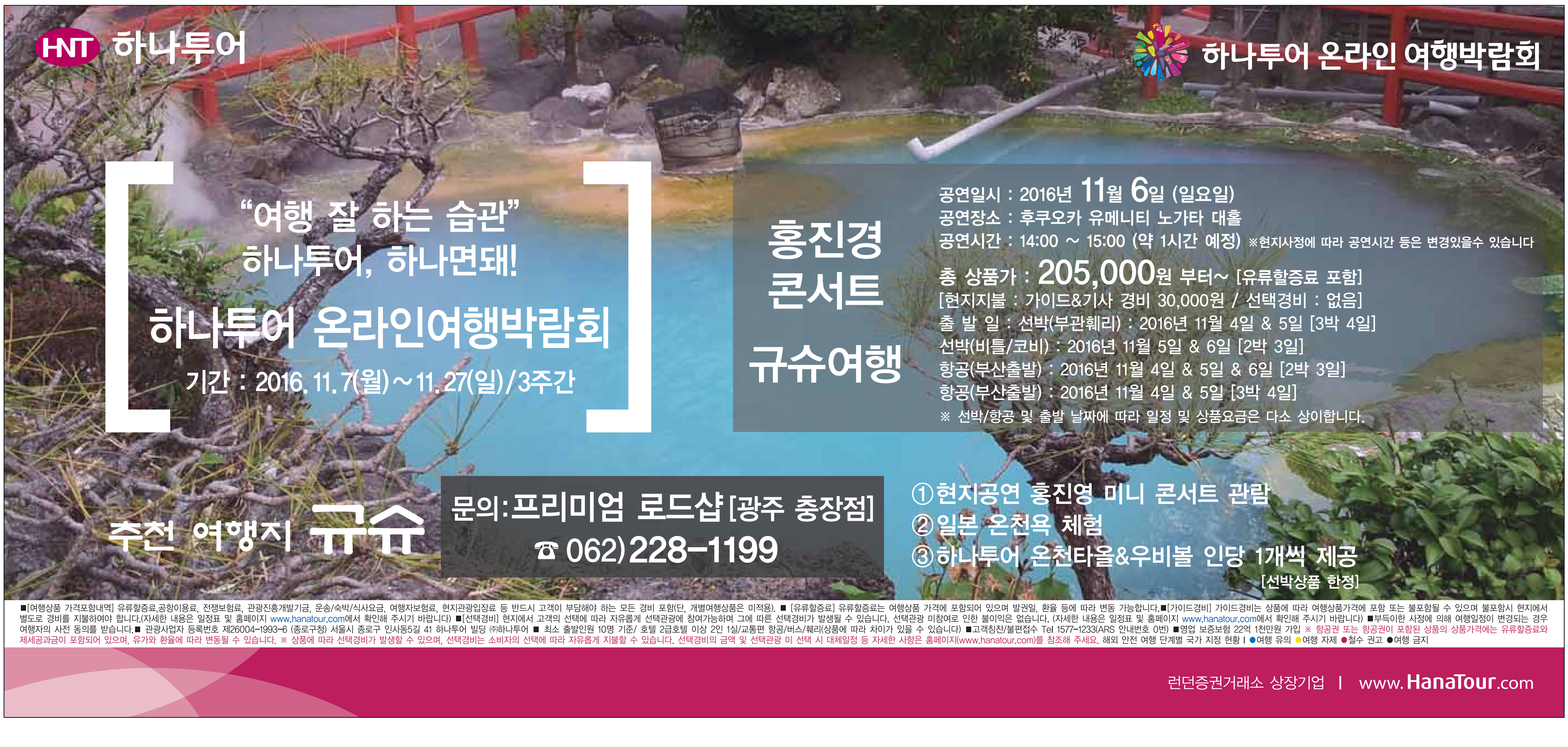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비서실장 윤기현씨

광주시는 17일 최근 사임한 박용수 비서실장 후임으로 윤기현 행정지원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부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해 왔으나, 공직 내부와의 소통과 내부 조직원들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 등 사기진작을 위해 내부 공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윤 비서실장은 교통정책과장과 체육진흥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광주시는 박 비서실장과 함께 사임한 노성경 정무특보 후임은 향후 공모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